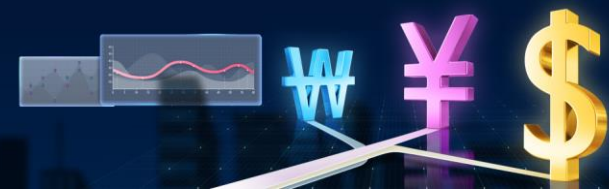


Eugene's FICC Update

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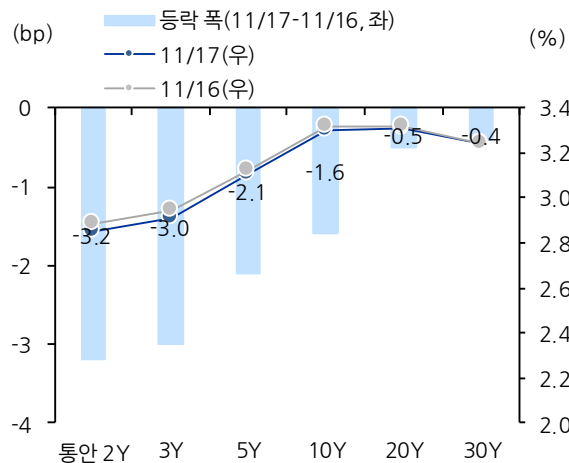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02)368-6149_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02)368-6138_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(단위: %,bp, 톱)

		11/17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2.914%	-3.0	4.9	31.8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01%	-1.6	7.1	44.6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8.7	37.3	36.5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78	13.0	-18.0	-87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4.00	30.0	-65.0	-292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610%	0.2	4.7	-63.0
	미국채 10년물	4.140%	-0.9	4.2	-43.2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3.0	54.1	53.5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13%	-0.6	4.8	35.0
	호주국채 10년물	4.476%	4.0	7.7	10.8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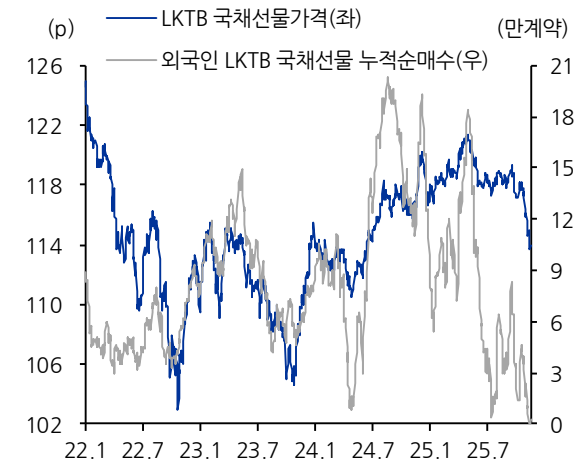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강세 마감. 입찰 호조, 저가매수 유입.
- 전일 영국, 미국 금리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금리는 오전 국고 10년물 입찰이 호조를 보이자 하락하기 시작. 이후 외국인의 3년, 10년 국채선물 순매수가 유입된 것도 강세 견인.
- 그 외 특별한 재료는 없었으나 그간 빠른 금리 상승에 따른 레벨 메리트 등으로 저가매수도 유입된 것으로 보임.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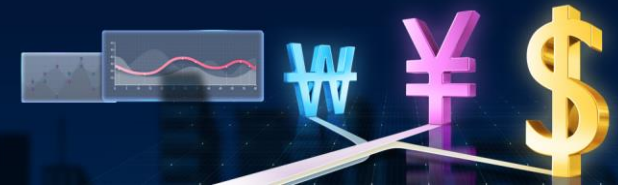
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소폭 강세 마감. 다양한 재료로 인해 등락 반복.
- 영국 물가 우려 다소 낮아진 가운데 전일 급등했던 영국 gilt채 하락 전환. 이에 미국 금리도 유럽장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.
- 아마존에서 3년~40년까지 150억달러의 회사채 발행을 발표하면서 금리 하락폭 일부 축소. 뉴욕 증시 하락 및 엠파이어스테이트 제조업지수 호조 등도 영향. 장 후반 월러 연준 이사가 위험관리 차원에서의 12월 인하를 지지한다는 발언으로 금리 하락폭 소폭 확대.

자료 출처: 연한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 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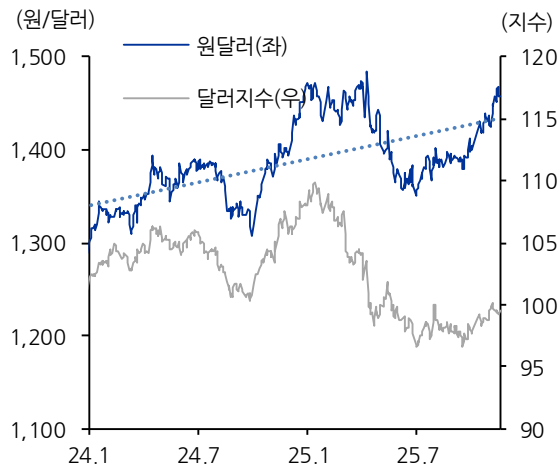
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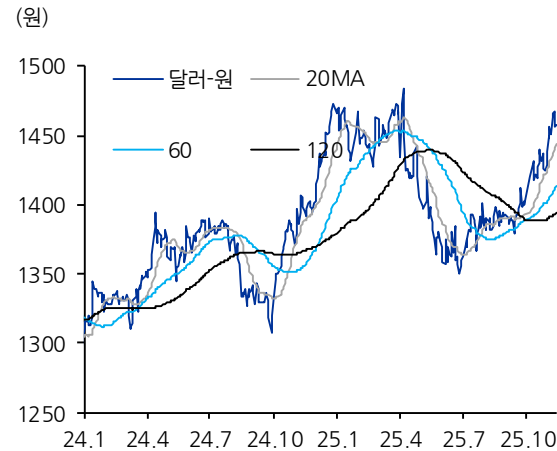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\$)

	11/17일	1D	1W	YTD
원/달러	1,458.00	0.1%	0.5%	-1.0%
달러지수	99.55	0.3%	0.0%	-8.2%
달러/유로	1.159	-0.3%	0.2%	11.9%
환율 위안/달러(역외)	7.11	0.1%	-0.2%	-3.1%
엔/달러	155.23	0.5%	0.8%	-1.2%
달러/파운드	1.315	-0.1%	-0.2%	5.1%
헤알/달러	5.32	0.5%	0.4%	-13.9%
WTI 근월물(\$)	59.72	-0.6%	-0.7%	-16.7%
금 현물(\$)	4,040.92	-1.1%	-1.7%	54.0%
비트코인(\$)	91,925.00	-2.6%	-13.6%	-2.3%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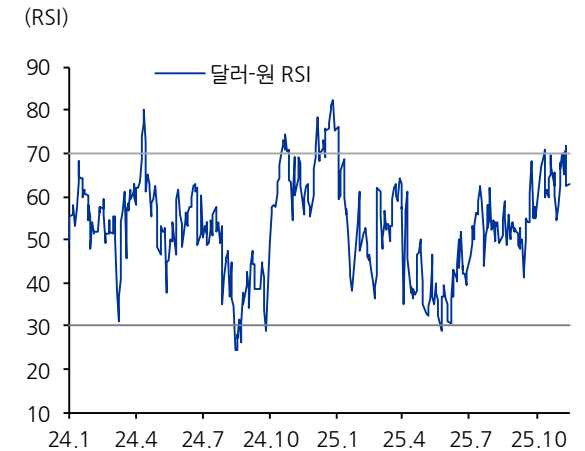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+1.00원 상승한 1,458.0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60.40원 마감.
- 지난 주말 역외 하락 분을 반영해 1,451원 선에서 하락 출발한 달러-원은 개장 직후 낙폭을 빠르게 축소하며 상승 전환. 이후 점심 무렵부터 재차 상승폭을 키웠음.
- 장중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, 지난주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에 따른 달러 강세와 낙폭이 컸던 데 따른 반발 매수 작용. 다만 지난주와 다르게 1,460원 부근에서는 저항을 받았음.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12월 금리 인하 불확실성에 상승.
- 간밤 제퍼슨 연준 부의장은 중립금리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통화정책 변화를 천천히 진행해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12월 금리 동결 가능성에 무게. 이후 월러 이사는 예상대로 약한 노동 시장을 이유로 12월 인하를 주장.
- 엔화는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약화와 18일 예정된 다카치 총리 - 우에다 BOJ 총재 간 회담을 앞두고 경계심이 커지면서 달러 당 155엔 선 돌파.
- 미국 증시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기술주들이 재차 하락 압력을 받으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고조.